

대학분규의 핵으로 등장한 '민주총장'

총장선출 타학과 사례와 그 문제점

'민주총장'이란 과연 어떠한 총장을 일컫는가? 현재 우리 학교는 '조영식총장' 사퇴와 '표명우' 차기총장추진문제에 켈레르전반을 흔들고 있다. 그러나 정치 2개월이 지난 지금 여전히 '민주총장'이란 어떠한 인물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유효하다. 그것은 학내구성원들사이에서 민주총장은 여전히 추상적인 존재이고 차기총장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87년부터 제기되어온 타학과 교수협의회 총장 선출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이후 전개될 우리학교 총장선출문제를 논의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 주)

학부보, 동양학과 교수인 그야말로 전조선인이 참가한 가운데 총장선출문제를 논의한 후 보를 선임하여 그 후보로 교수협의회가 투표한 결과 제1대 학장선출으로 이문명총장을 선출했던 것이다.

조선대의 이같은 투쟁이 전개된 88년 당시에는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전국대학에서 교수협의회(또는 학교수협의회, 교수협의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던 시기였다.



학원민주화 열기타고 총장직선제 대두 구성원간 마찰, 파벌조성등 문제점 노출

역할했던 대학교수들은 학생들의 학원민주화열기를 나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 그 자성의 노력으로 교수협의회를 결성했던 것이다.

직선총장으로 대변되는 민주총장선출은 바로 이 교수협의회의 결성과정에서 나타난 일종의 결속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87년 8월 전국최초로 경기대에 교수협의회의 발족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까지 모두 67개 대학에 교수협의회가 결성되어 있다.

교수협의회의 결성과 더불어 진행된 직선제라는 것은 총장선출방식은 크게 ▲교원선출방식 ▲교수 임명방식 ▲교수 선출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교원선출방식은 연세대, 건국대, 경기대 등이,

교수 임명방식은 한양대, 전남대 등이 실시하고 있다. 각 학교마다 나산 선출방식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교수협의회의에서 직선으로 2~3명의 총장을 선출한 후 제1회 총장으로 1명의 후보를 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총장직선제는 많은 대학에서 제단과 마찰에 부딪히곤 했다.

또한 '1학교 2총장'이라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학교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세종대와 경기대를 들 수 있다. 제단이 임명하고 임명된 박종우총장과 교수, 직원, 학생이 참가하여 선출한 이준을 총장이 각기 총장직권을 행사하

는 사건은 직선총장을 바라보는 시립학교재단의 입장을 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재총대의 이같은 총장선출과정에서의 전통은 이후 장기적인 학원민주화사태까지 번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대의 경우는 제단으로부터 직선총장이 해임되고 총장이 임명되어 문교부로부터 승인을 얻었고, 직선총장으로 선출되었던 박종우총장은 '총장직선제'라는 명목으로 '총장직선제'를 내 놓고 정무부 장관에게 면직을 요청한 바 있다.

80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는 총장의 직선제까지도 일부가 가능하고(54조2항), 제단이 총장을 임명한 뒤 문교부에 보고만 해도 되는 데다가(53조1항)

교수협의회의 직선총장을 임명하는 경우를 배신단이라고 되 버렸다.

이외에도 부산외국어대학, 동국대, 덕성여대, 호남대 등의 학교가 직선총장 선출문제 제단과의 마찰을 빚었고 현재 이두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듯 총장선출과 관련된 여러대학에서 겪고 있는 전통과 제단과의 마찰이 이렇듯 총장직선제에 있어서는 전통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것은 타학과 사례를 통해 자명해 드러나고 있다. 우리 모두의 역할과 책임이 이 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의 경우 지난 90년 교수협의회, 학생재, 직원대표

등 3개 단체대표 20명으로 '총장 후보추진위원회'를 결성했으나 후보추진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들의 반대속에 교회가 부로, 김희진총장이 재단에 의해 임명을 받았다.

인하대, 성균관대, 숙명여대를 비롯하여 조선대의 경우는 '제2대 민주총장' 선출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양상의 전통을 겪었던 학교이다.

현재 중대에는 교수협의회의서 학생들의 선거권리집행 참여를 규정한 '혁신적인총장선출안'을 마련했으나 다수의 교수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전통을 겪고 있다.

직원대표 학교구성원임을 주장하며 직접 투표권을 요구했던 부산외국어대학의 경우도 학내구성원의 선출참여문제에 대한 전통을 드러냈다.

타학과 사례에 비추어볼 때 총장직선제에 또 하나 지적되어야 할 문제는 교수파벌문제이다.

우리나라대학의 학원-자연에 의한 교수파벌 문제는 너무나 뿌리깊은 것으로 이렇게 형성된 교수사이의 파벌을 총장선출과정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위에 서술한 총장선출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결코 작지 않은 것들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들이 총장직선제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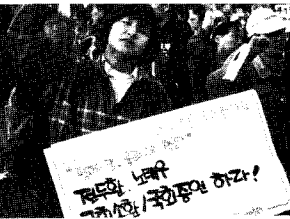
조영식총장이 사퇴의사를 밝힌지 2개월,

□ 사회단신

한총련 '5·6공 간재청산결의대회'

지난 16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도서관 앞 민주광장에서 '12·12사태와 5·18우범 전투단·노태우 사법처리와 5·6공 간재 청산결의대회'가 있었다.

한총련 주최로 약 2천명이 모인 이번 결의대회에서 학생들은 "이런 대서사 과정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한 학생의 소극적인 개혁자세를 비판하고 이러한 개혁의 한계를 가져오는 민관대립의 5·6공 재청산과 군정의 잔재를 청산하자고 결의했다.



또한 이날 집회에 참석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한총련 대변인은 "민국의 소말리아! 전후의 평화정착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제2의 월남안이 될 수 있는 소말리아 사태에 우리 청년들을 보내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미국의 평화유형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분대에 있어서 원전 폐기를 하고 노동자들의 사전 협회가 있었더라면 12월20일 간의 명동집회 농성도 고향을 통해 있었더라면 농성 지원을 요청했다.

문부식별 첫시점 '꽃들'퍼내

어디 핀들 꽃이 아니라/길목 안에 핀다/원한하지 않고/간절한 자들과 함께/너를 위한 열매로 하루를 여니/간혹 담을 넘어/소말리아는 소말리아/침묵한 길에서/우리의 마음은/이 길로/남아있어/하루 모였으니/견딜 수 없을/어디 핀들 꽃이 아니라

(문부식별 시집 '꽃들' 중 '꽃들')

82년 부산 시민문화재단의 주관한 문부식별의 첫시점 '꽃들'이 출간되었다.

"어디 핀들 꽃이 아니라"로 시작하는 시 '꽃들'을 비롯하여 '목숨을 위하여', '첫눈', '내리는 겨울밤에 온 시' 등 총 58편의 시가 실린 이 시집의 말문에 따르면 김형석은 "이 시집에서 수차례의 죽음에 이르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정신적 지력을 엿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부식별은 59년 부산에서 태어나 77년 부산 고신대 신학과에 입학하였다.

지난 82년 부산 시민문화재단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감형되어 88년 출간되었으며 92년 '노두'를 창간하여 시를 발표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하였다.

93년 우리나라 경제GNP는 총 2백66조7천억원, 이중 교육예산은 GNP대비로 보면 총 3.7%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교육재정확보는 교육 환경 개선뿐 아니라, 문명진화해 걸맞는 정도의 변화에 뒷받침하는 재원확충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이다.

비록대는 고등교육의 정상화와 초·중·고교의 질적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의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어제 오날만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확충을 고교의 자율적책임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교육의 현실을 직시함을 시작으로 경제문제에 파문하여 교육문제를 과감히 풀어놓는 '개혁'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모상용 記者)

"비틀대는 초등교육, 임용고시로는 안된다"

—이경동군 출신으로 터진 교대생의 개혁목소리

김영삼 대통령의 신경제 무위 정책에 따른 교육 확대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주장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뒤어는 신교육 정책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신경제 정책에 비해 그간 행해졌던 교육 개혁의 모습은 교원 수 5개년 중점 조치에서 볼 수 있듯이 부족한 초·중·고교의 현실 속에서 교육계의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초·중·고교 현장의 실태를 살펴 보면 국민학교 2부제 수업 문제를 비롯하여 교사 1명당 학생 50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서울시에만 3천 학급에 이른다. 이처럼 초·중·고교사들은 중·고교사의 주된 평균 수업 시수 19.2시간보다 9시간장교다

너 많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 교과 전달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정도로 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9월 8일 광주의 이경동(광주 교대·유리교과·89)군의 문신 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대변이라도 하듯 거센 과민을 불고했다. 현재 5개 교육대학교 수업을 거부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의 공약인 교육재정 5%확보 ▲94년도 교원신규 채용 규모의 조속한 발표와 중·고·고교의 수업료의 수급과 미흡을 위한 정부의 '수급 조절위원회' 설치 ▲올바른 임용제도 정립을 위한 '임용제도 개혁위원회'설치를 주장하며 11개 교대생들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현행 임용제도로 임용고시 제도는

'자격과 임용의 분리'라는 제도적 모순 속에서 교대 4년간의 교육 과정을 교사로서의 자질을 완성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분리하고 재교육의 교육과정을 자격으로 보완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증은 자격으로만 그칠 뿐 초·중·고교 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즉 자격증을 가지고도 단지 수요가 요구하는 등수에 들어야만 초·중·고교현장에서 자격과 자격을 동시에 부여받게 되는 셈이다.

중·고교 현장을 양성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의 수가 많고 평준화 되어 있어 시범을 통해서 그에 따른 성격으로 중·고교현장을 임용할 수 있고 현재 그렇게 임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대학교인 경우 유일한 초·중·고교 현장 기관으로서 각 시·도의

교원 수요에 맞추어 외곽적으로 일정한 인원만을 모집하여 초·중·고교사만을 임용하도록 운영되는 국가공립제이다. 따라서 교대 4년간의 교육과정은 임용을 전제로한 자격교육인 셈이며 그렇기 때문에 현행 임용제도로 임용고시 보다는 학교의 성격에 따른 교원 임용이 바람직한 것이다.

아울러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교육재정의 확보에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교육재정확보를 지시하면서 그 전제로서로 교육재정 5% 확보를 비롯하여 많은 교육개혁의 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부담을 재정에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교부유 11.8%에서 15%로 인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올린 2001년 내 예산 중 교육 예산 부분만을 살펴 보면, 정부예산 총액 41조9천3백60억원 중 교육예산은 9조 8천3백10억원(특별 회계 제외)으로

로 전체예산의 중역 되었으나 전체 예산의 증가 비율보다는 감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은 확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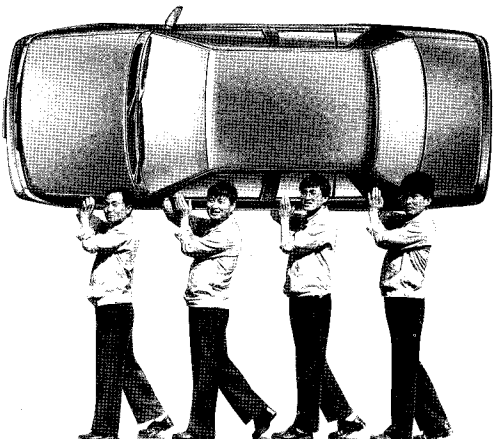
93년 우리나라 경제GNP는 총 2백66조7천억원, 이중 교육예산은 GNP대비로 보면 총 3.7%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교육재정확보는 교육 환경 개선뿐 아니라, 문명진화해 걸맞는 정도의 변화에 뒷받침하는 재원확충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이다.

비록대는 고등교육의 정상화와 초·중·고교의 질적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의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어제 오날만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확충을 고교의 자율적책임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교육의 현실을 직시함을 시작으로 경제문제에 파문하여 교육문제를 과감히 풀어놓는 '개혁'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모상용 記者)

"자동차의 몸무게를 줄이는 사람들"



승용차경량화연구소 자동차 경량화 연구팀

"우리 자동차도 이제 군살 좀 빼요. 비싼돈 사람이 병에 걸려도 몸무게 무거운 자동차가 연료도 많이 들고니와 환경오염의 주범이거든요."

승용차경량화연구소 자동차 경량화 연구팀 박명현 연구원

이처럼 자동차 몸무게를 줄일 수 있는 신소재 개발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과제이자 더 나아가 수출진출에서 차가이 걸린 문제라고 그는 말한다.

요즘은 수출업체에서조차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선진국 수준에 맞는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지 못할 경우, 수출 판로가 막혀버리게 되는데...

쇠보다 훨씬 가볍지만 그보다 충격에 강한 신소재는 없을까? 고민하는 동안 자신의 몸무게까지 줄었다는 자동차 경량화팀 사람들—

무한대의 잠재력과 비전을 지닌 오늘의 현대자동차들이다.